

■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제3강**



“예술과 자본의 만남은 필연적 정확한 가치평가가 발전 전인”

‘예술 자본주의의 비명’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예술과 자본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래야만 융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이 예술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술이 지속 한 자본에 종속되거나 예술되어서는 안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으 로 25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광주문화포럼’ 세 번째 강좌 강사로 나선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 이사.

이 대표이사는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 ‘예술 자본주의의 비명’을 주제로 작가, 큐레이터, 대학생, 시민 등 참석자 200 여명에게 자본 중심으로 시스템화되어가는 오늘날 예술현상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예술 창작과 시장 간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의 중간 이용우, 백남준, 마르셀 뒤샹,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겸재 정선 등의 작품과 사례를 예로 들 며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대표는 다소 생소한 ‘예술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되어가는 예술 시스템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생산해내는 자본주의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술과 자본주의가 만나게 된 것은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테 오도르 아도르노가 쓴 ‘계몽의 변증법’ 이라는 책에 이 용어가 등장한 이후 초기 레오 드, 문화잡지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3 년 이후 문화산업은 연간 40%씩 성장,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통계 가 있다. 예술과 자본을 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홍콩서 열린 서울 옥션 경매 에서 한국 현대미술 작품 중 최고가인 21억 원에 낙찰된 이우환의 ‘점으로부터’(1977)와 빌 게이츠가 약 350억원에 구매한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인 ‘코덱스 레스 터’로 ‘미술품의 가치’와 자본에 관한 이야 기를 이어나갔다.

“이우환의 작품이 21억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예술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 다. 가치는 알고 있는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 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작품에 대한 정 확한 가치판단을 해야 미술시장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미학·역사·자본 등 3가지 측면의 가치를 놓고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본적 가치 하나만 평가해 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대표이사는 일본 나오키마 이우환 미술관에 있는 설치 작품과 ‘레디메이드’란 개념을 만든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 등 이 미술사에서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자본 논리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데미안 허 스트가 해골을 본뜬 조각에 8600개의 다이 아몬드를 붙여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와

제프 쿤스의 작품들은 최근 자본적 가치가 우선되는 작품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작품들은 ‘화제’를 양산하는 것 들이다. 시장 논리에서 통하고 가격도 월등 히 높다. 두 작가가 훌륭한 예술가임은 틀림 없고, 존중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 그 자체 의 미학적 측면보다 그 안에서 파생되는 다 양한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야기를 만들고, 미디어가 따라붙어 시장에서 이 야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두 작가 의 작품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실험성, 전 위성, 급진성 등을 이야기하는 비엔날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의미다. 이 대표가 말하 는 ‘예술 자본주의의 비명’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은 예술의 철학적 깊이를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문화에서 재미가 사라지 면 성공도 없다. 또 의외성과 충격성이 재미 를 선사하기도 한다. 단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오늘날 시각예술문화를 어떻 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예술과 자본의 만 남에는 공공성이 담보 돼야 한다. 여기 있는 작가, 시민분들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 광주비 엔날레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광주문화포럼 제4강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미디어아트에겐 평가 특별할 것이 있다?’(강사 박영욱 숙명여대 교수)를 주제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소슬한 바람... 전통 음악의 손짓

국악그룹 ‘황토제’ 정기공연 30일 문예회관

각 지역에 사투리가 있듯, 지역을 대표하 는 민요, 무속 음악 등에도 독특한 음악 어 법이 있다. 이를 순 우리말로 ‘토리’라 이 르고, 한자로는 ‘조(調)’ 또는 ‘제(制)’라고 한다.

국악 실내악 그룹 황토제(대표 이왕제) 는 올 정기공연의 제목을 ‘토리’와 영어에서 복수를 가리키는 ‘s’를 더해 ‘토리스’라 고 부쳤다. 각 지역 민요와 함께 외국 민요 를 재해석, 새로운 음악 어법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는 작곡가들에게 위촉한 새로운 곡들을 처음 선보인다.

연주 레퍼토리는 실내악 합주곡 ‘아니노 지 못하리’(임교민 작곡), ‘산타루치아’(오 찬호 편곡), ‘클레멘타인’(고은에 편곡), ‘바람의 아리랑’(황호준 작곡), ‘술래가 돈 다’(이경섭 작곡) 등이다.

또 노래곡 ‘몽금포 타령’, 임카의 토속음 악을 재해석한 소금합주곡 ‘엘콘도르 파사’

등을 선사한다. 지난 1999년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을 중 심으로 창단한 ‘황토제’는 전통음악과 함께 현대 흐름에 맞는 국악 창작곡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0-9212-543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과 함께 가을로 광주여성필 내일 광산문예회관

광주여성필(단장 김유정)과 함께하는 광 산해피콘서트 세번째 공연이 28일 오후 5 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영 앤 프로 콘체르토’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전공하는 어린 유 망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연주자 들이 함께 공연하는 무대다.

장동진(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씨가 지휘봉을 잡으며 소프라노 김선희, 바 리톤 김홍석, 바이올리니스트 문지경, 피아 니스트 박의혁이 협연한다. 바이올린 조유 진, 피아노 박다혜·김진영 등 예술 꿈나무 들도 무대에 선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로지문테’

서곡, 시벨리우스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리스트·슈만·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구노의 ‘보석의 노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날지 못하리’ 등 이다. 티켓 가격 1만원. 4인 이상 가족, 다문 화 가족 무료 초대. 문의 062-980-8989.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 수련의 場’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의 10월4일~12월26일 아카데미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회장 조진태)가 문학아카데미를 개설한다.

1996년부터 문학아카데미를 개설해 전 문적인 문학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작가 회의는 10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중흥 동 평생학습센터(작가회의 사무실)에서 문 학 수련의 장을 마련한다.

개강일인 오는 10월 4일(오후 7시 30분) 에는 소설가 채희운(광주여대 교수·사진) 씨가 ‘문학과 인문학’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그밖 책 독서교실은 이지담 시인이 매주 목요일(10월 10일~12월 26일·10시)에



백희나 작가의 ‘구름뿔’ 등을 텍스트로 감상과 회원작품의 합평을 실시 할 예정이다. 소설 창작 반은 은미희 작가가 매 주 목요일(10월 10일~ 12월 26일·오후 7시 30 부)에 개교 짜기와 묘사, 서사 등 실제 소설 쓰기 와 관련된 주제로 강의한다. 모집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수강료는 15만원. 문의 062-523-7830,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예술은행 응모작 접수

전남문예재단 10월 22~31일

매주 토요일 진도 윤립산방에서 열리는 토요그림경매에 참여할 작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0월 22~31일 하반기 남도예술은행 응모작품 접수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응모작 접수는 남도예술은행 누리집(www.nartbnk.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응모 분야는 한국화(채색화·수묵화), 문 인화, 서예(전각·서각 포함), 서양화(수채 화·관화·유화) 4개 분야며, 출품 주제는 ‘전남의 사계절’, ‘전남의 역사와 인물’, ‘전 남의 꽃’, ‘전남의 심상(추상)’ 등이다. 문의 061-280-5823. /이보람기자 boram@



25일 열린 광주문화포럼에서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이우환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특허명칭: 낙지 요리용 재료